



즉시 배포용: 2023년 5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뉴욕주의 불법 대마초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새 법안을 통해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가 무면허 진료소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벌금에는 하루 최대 20,000 달러의 금액 포함

OCM은 제품을 압수하고 불법 상점 폐쇄 명령 처분 가능, DTF는 미납 세금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뉴욕에서 무면허 및 불법 대마초 판매에 대한 민사 및 세금 처벌을 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월 주지사가 처음 제안한 이 법안은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추가 집행 권한을 제공하여 새로운 규제 요건을 시행하고 불법 대마초 판매에 연루된 매장을 폐쇄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주가 대마초 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를 선도하는 모델을 계속 출시함에 따라 이러한 중요한 집행 조치는 불법적이고 규제되지 않은 판매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무면허 진료소는 우리 법을 위반하고 공중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며 합법 대마초 시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단속 도구를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한 제품, 수년간의 불균형한 단속을 견딘 지역사회에 대한 재투자, 뉴욕 주민들을 위한 더 큰 기회를 위한 길을 닦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과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가 뉴욕주 전역의 무면허 매장 및 트럭에서 대마초 판매 및/또는 증여를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번 주법 변경으로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은 그들의 노력을 저해할 무면허 대마초 사업체에 대해 민사 처벌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행위에 대해 하루 최대 \$20,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면허 없이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소위 "스티커 샵"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판매 및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규제 검사를 수행하는 대마초 관리국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은 무허가 사업체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압수하고 적절한 면허 없이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는 상업용 임차인을 법원 명령, 폐쇄 명령 및 해고할 것입니다.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는 이제 적절한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대한 규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적절한 세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필수 대마초 세금을 고의적으로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대마초를 고의로 판매용으로 소지하는 사업체에 대해 새로운 세금 사기 범죄를 규정합니다.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의 **Chris Alexand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뉴욕 주민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우리 주의 성장하는 대마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가장 공평한 대마초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Kathy Hochul**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원내대표, **Carl Heastie** 하원의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법안은 대마초 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우리 법을 여기려는 사업체를 폐쇄하고 재투자 자금을 약속받은 지역사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조세재무국장 대행 **Amanda Hil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마초 산업과 관련된 세법을 강화하고 강력하고 공정한 집행을 제공하면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OCM은 현재까지 165개의 허가서를 발급했고 이번 달 대마초 통제 위원회 회의에서 더 많은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8개의 성공적인 진료소](#) 및 1개의 배송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맨해튼과 퀸즈의 비영리 단체, 기업가 및 여성 소유 사업체, Ithaca 및 Schenectady의 기업가, Binghamton의 비영리 단체, Albany의 주 최초 배달 사업체가 포함되고 이들은 앞으로 짧게는 몇 주 및 길게는 몇 달 안에 더 많은 진료소를 열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이면서 허가를 받은 모든 진료소는 정문 근처에 [진료소 인증 도구](#) 를 게시해야 합니다.

4월 18일,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허가된 진료소에서 보다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합법적인 대마초 구매를 촉진시키는 ["Why Buy Legal New York"](#)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공 교육 캠페인은 뉴욕에서 합법적인 진료소를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대마초를 안전하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자료는 <https://cannabis.ny.gov/consumers>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